

인기스타들과 함께 더위를 식히는 포교의 현장 'BBS 공개방송'이 여름을 맞아 특집 공개방송을 연이어 개최, 매회마다 5천명이 넘는 인파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번 'BBS 여름 특집 공개방송'은 오는 26일, 8월3일, 4일, 9일, 11일, 23일, 24일까지 연이어 펼쳐지게 된다. 이에 앞서 BBS는 지난 6월29일, 7월7일, 17일, 20일, 21일에도 이미 대형 공개방송을 인기리에 진행해 왔다.

BBS 여름 특집 공개방송은 그 이름과 내용도 다양하다. 기존프로그램 이름을 딴 백발가요 특집 공개방송을 비롯 오는 8월3일에는 여름을 더욱 달구어줄 젊은층을 겨냥한 '블루콘서트'가 준비되고, 이어 8월 4일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한여름밤의 트롯 대행진'도 진행된다. 또한 8월11일에는

공개방송	날짜	시간	장소
백발가요여름특집	7.26	오후 8시	서울랜드 세계광장
블루콘서트	8. 3	오후 8시	광창 보람취니스파크
한여름밤의 트롯대행진	8. 4	오후 8시	서울랜드 삼천리대극장
백발가요여름특집	8. 9	오후 8시	서울랜드 세계광장
...강릉시인과 함께	8.11	오후 8시	경포대 해수욕장
백발가요여름특집	8.23	오후 8시	서울랜드 세계광장
백발가요여름특집	8.24	오후 8시	롯데월드 호반무대

BBS 공개방송 “포교현장으로”

여름특집 잇달아... '블루콘서트' 등 다양 불자연예인등 인기스타 총출동...팬클럽도 결성

2002년 월드컵 유치 성공기원 및 제6회 경포대 유등 대법회를 겸한 'BBS 특집 공개방송 강릉시인과 함께'가 경포대 해수욕장 특설야외무대에서 시원 스타 펼쳐질 계획이다.

'BBS의 공개방송은 타 방송사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타방송사들의 자극제가 될

정도'라는데 방송가 주변의 풍여기에 김병조, 김종석, 김수정, 김창남, 남희석등 불자 MC들의 신신어린 진행과 요즘 최고 흥행주가를 올리고 있는 클론, 콜라, Ref, 신승훈, 이예린, UP, 비, 베벤드, 녹색지대 등과 같은 국내최고 인기스타를 현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어 1시간 내내 무어의 경지에서 불교를 새롭게 느끼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런 인기로 힘입어 얼마전 부터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BBS공개방송 팬클럽이 결성돼 매번 공개 방송때마다 참석, 공개방송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고 담당 유병직자는 전하기도.

이밖에도 BBS 공개방송은 지난 5월 부처님 오신날 특집 공개방송을 비롯, 유니세프 한국



이은자 기자

◇BBS가 주최한 빈곤퇴치를 위한 사랑의 콘서트 현장. 그들 솔리드의 노래에 5천여 관객이 열광하고 있다.

종단소식

캄보디아 훈센총리 16일 봉원사 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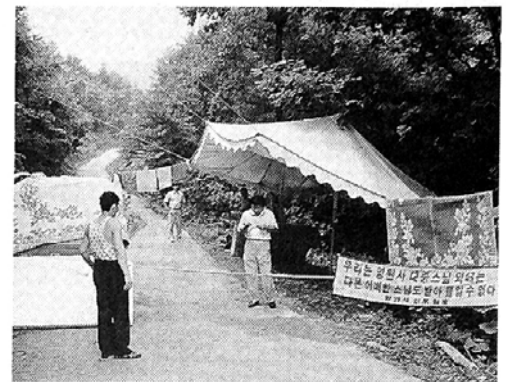
한국과 캄보디아간의 불교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해초스님은 지난 16일 신촌 봉원사에서 방한중인 캄보디아 훈센총리의 예배를 받고 양국간의 불교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훈센총리는 "봉원사 중앙불사의 원만한 회합을 위해 필요한 원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초스님은 "종단도 양국간의 원활한 불교교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태종 중앙청년회 구인사서 수련대회

천태종 중앙청년회(회장 이문수)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총본산 구인사에서 제13회 전국 청년회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관공정진을 통한 수행관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수련대회는 관공정진, 특강, 환경수호 캠페인 및 극기훈련, 각 지구별 토론회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영원사 주지임용에 반발하는 신도들이 두달째 집요로 막고 스님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비예정은 텐트를 밀리는 신도들은 "20여년간 비구니스님과 신도들이 힘 모아 중창했다"며 비구니스님의 주지임용을 반대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이천 영원사 '산문폐쇄' 현장을 가다

"영원사 스님이외에 어느 스님도 절에 올라갈수 없습니다. 우리손으로 기와장을 올려 비구니스님과 지은 절인데 다른 스님들이 뺏으려 해요."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이천 백사면에 소재해 있는 영원사 절로. 4~5명의 건강한 마을청년들이 나이론 끈으로 길을 막고 통행인의 신분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었다. 신도들이 스님들의 통행을 제한하며 '산문폐쇄'를 단행하는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주사측은 "주지는 세 만기(한 만기 4년)를 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성근스님과 신도들은 종도로서 중헌 중법에 따라 주지

btn 방학특선 25부작 '서유기' 방영

불교TV가 여름방학 특선 어린이 드라마 25부작 '서유기'(오후 2시35분~3시25분)를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방영한다.

손오공과 삼장법사, 저팔계, 사오정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인 서유기는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서유기는 중국 CCTV에서 수입했으며 배



'BBS 스포츠' 매일아침 올림픽현장 중계

매일 아침 불자들의 하루에 활력을 제공하는 'BBS 스포츠'(오전 8시40분~9시15분)가 올림픽을 일주일 앞둔 지난 15일부터 제26회 애틀랜타 올림픽 현지를 연결, 생생한 올림픽소식을 배달하고 있다.

올림픽이 끝나는 오는 8월 6일까지 계속 애틀랜타 올림픽 소식을 특집으로 다루는 이 프로의 진행자 조문배 아



◇애틀랜타 올림픽조직위가 조지아대학의 기독교회관을 빌려 마련한 종교관 입구.

애틀랜타올림픽선수촌 종교관 개설

불교·기독교등 6개방... 종교의식 대행업 상주

애틀랜타 올림픽 운영위원회는 지난 12일 올림픽 선수촌에 종교관을 개관했다. 이 종교관은 선수촌이 있는 조지아대학의 기독교회관을 올림픽 운영위가 빌려 불교·기독교 등을 위해 6개 방을 마련한 것. 각 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개방하며, 종교의식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 2명이 상주한다. 종교의식을 돕는 단체는 종교의식대행업 전문으로 하는 '엘머 고블'이며, 이 단체에 소속된 종교 지도자 37명이 자원

신도들 생업전폐 '사찰지킴이'

전임주지 20년 중창불사 공적 인정 요구

용주사 '임기 세 만기 안담기는 것이 관례'

었다. 1천3백여m에 이르는 집요로가 말끔하게 단장되어 있는 것이 비구니스님의 정성을 느끼게 한다. 절에 다다르자 20여명의 보살들이 절내에 웅기웅기 앉아 손님을 맞는다.

영원사는 신라 선덕여왕 7년(638년)에 세워진 전통사찰이다. 경내에는 창건당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약사여래좌상이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영원사는 20여년전 만해도 작은 법당과 요사채만 남아 폐사에 가깝게 퇴락해 있었다. 1975년 당시 21세였던 성근스님이 주지로 임명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성근스님이 20여년간 불사와 포교에 전념해 지역 유수의 사찰이 되었다. 지난 4월, 성근스님의 주지임기가 만료되자 본사인 용주사는 그동안 성근스님의 공적을 인정하던 전례를 깨

목탁 소리

이준엽 (취재1부 차장대우)

일 이후의 정신적 통일을 위해 한민족의 정서가 탄생한 인각사를 성역화하겠다는 것이 법타스님의 원력이다. 이를 위해 인각사 주지로 역임했던 스님을 모신다는 것이다.

주지는 사찰의 주권자이면서 재산과 수행자들을 의호하는 승려이다. 예전에는 사관승으로 분리되어 서로 주지를 맡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주지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

법타스님은 새로운 인각사 주지에게는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본사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다. 또한 역사성이나 특수성이 있는 고찰은 개성을 살려주기위해 계속 역임했던 주지를 초빙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지공모가 세속에서의 신임사원 모집하듯 해서는 안되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스님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생생한 법어, 생생한 불교사료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이전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자,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 1호** 를 발간하였습니다.

주옥 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 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가 고민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합본호 1집** :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10.15) ▶ 제59호(95.12.27)
 ■ **가 격** : 50,000원 (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02)737-8881 팩스:(02)737-0697

법적 생략 · 현대 · 세기 (주) 현대불교신문사 (대) 737-8881

불자의 긍지,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전국지사·지국 보급소 모집

언론불사에 참여하여 범공덕을 짓고 포교의 일선에서 일할 지사, 지국 보급소를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자격** 주소지에 3년 이상 거주하신분, 불심이 돈독하여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신원이 확실한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자필 이력서 1통, 주민등록 등본 2통
- 대상지역** 전국 각 도·시·군·구
 ※ 광주, 부산, 대구, 목포, 공주, 사천, 제주, 강릉, 부천지역 제외
- 모집기간** 96년 7월1일 ~ 7월 31일
- 선발** 서류전형후 개별 통보
- 보낼 곳**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8881, 팩스 : 737-0697